

“문화수도 상징 호수공원 만들자”

광주전략연구단 분과별 최종보고회 제기 세계적 명소들 예외 없이 ‘물’에 인접 광주천·황룡강 인근 100만평 규모로

문화도시 광주의 상징물이 될 호수 공원이나 친수 공간 조성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략연구단이 최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가진 ‘2007 분과별 연구과제 최종보고회’에서 도시마케팅 분과 연구진은 환경생태를 중요시하는 도시계획 및 공학의 세계적인 흐름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건물과는 별도의 환경적인 상징물 조성이 중요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광주전략연구단은 광주시의 장기 발전을 위한 과제를 연구하는 모임으로 6개 분과(도시마케팅, 생산도시, 문화도시, 생태도시, 사회복지, 도시 기반)로 구성됐다.
연구단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와 뉴욕 자유의 여신상, 런던 타워브리지, 하천복원으로 유명한 일본 기타큐슈 무라사키가와 등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들은 대부분 ‘물’을 끼

고 있다”면서 “광주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나 국제규모의 행사 개최를 대비해 호수공원이나 친수공원을 조성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단은 먼저 아시아문화전당과 인접한 광주천 주변 양림동·광주공원·사직공원 등의 역사문화적 명소를 정비하는 한편 광주천을 환경적으로 탈바꿈시켜 도심과 하천을 연계시킨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군사공항을 포함해 광주공항이 이전할 경우, 영산강과 황룡강이 합류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100만평 규모의 호수공원을 조성함과 동시에 배후에 업무·쇼핑·엔터테인먼트 등이 가능한 미래형 복합공간

을 만들어야 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특히 광주공항 부지의 미래형 공원(호수공원+복합공간)은 지하철과 순환도로 등 연계 교통망이 뛰어나 시민의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생태환경 및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시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줄 것으로 판단됐다.
광주전략발전연구원 관계자는 “광주만을 위한 광주라는 공간적 한계의 개념을 벗어나 세계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문화전당과 같은 건축물 건립은 물론 도심과 연결된 친수공간이나 도심 속 호수공원의 조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한·미 군 지휘관 악수
15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조지 케이지 미 육군 참모총장 서훈식’에서 케이지 미 총장(왼쪽)이 우리 군 지휘관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20조 해외 자원개발 투자

국민연금이 내년부터 총 20조원의 대규모 자금을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한다.
이에 따라 생산 유전과 광구 매입 등 그동안 자금부족으로 손을 대지 못했던 자원확보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등 3개 에너지 공기업은 지난 14일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과 4개 기관 최고 경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개발사업 기본투자계약서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연금이 투자를 약정한 금액은 앞으로 10년 간 총 20조원으로, 협약에 따라 국민연금과 3개 에너지 공기업들은 각 기관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투자분체를 협의하게 된다. /연합뉴스

절대 빈곤층 아동 102만명

보사研, 전국 3만가구 조사

우리나라의 절대 아동빈곤율은 2003년 기준으로 8.9%, 상대 아동빈곤율은 14.9%이며, 이를 아동수로 환산하면 절대 빈곤아동수는 102만 명, 상대 빈곤아동수는 170만 명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아동복지팀장과 배화옥 경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6일 보건사회연구(27권)에 발표한 ‘한국 아동빈곤을 수준과 아동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란 논문을 통해 이 같은 국내 아동빈곤을 추계결과를 내놓았다.
연구팀은 농촌지역을 포함한

전국 시·도 3만 가구를 무작위 표본 추출해 소득과 지출 등 사회계층을 파악한 ‘2004년도 국민생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 이 가운데 18세 미만 아동이 1명이라도 있는 1천538가구를 대상으로 아동빈곤수준과 빈곤아동가구의 특성, 아동빈곤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등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03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 4천784만9천227명 중에서 18세 미만 아동인구수는 1천142만464명이며, 이 가운데 절대 아동빈곤율은 8.9%(절대 빈곤아동수 101만6천421명), 상대 아동빈곤율은 14.9%(상대 빈곤아동수 170만1천649명)로 추정됐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글쎄요, 터질때는 순간이라서..

靑 민정·홍보수석 등 대선 직후 개편 인사

청와대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대 민정, 홍보, 인사수석 등을 교체하는 비서실 개편을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오는 20일께로 예상되는 이번 개편은 전혜철 민정수석, 윤승용 홍보수석, 박남춘 인사수석 등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뜻을 굳힘에 따라 이들의 공직사퇴로 인한 공석을 메우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게 된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새 민정수석에는 이호철 국정상황실장이, 인사수석에는 정영에 전 청와대 인사균형비서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수석은 천호선 대변인이 겸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목포~광양 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 여수엑스포 이전 마무리 될듯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에 필요한 주요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사업들이 박람회 개최 이전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16일,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와 관련해 최근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결과,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와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건설, 여수공항 확장 등 많은 사업비와 장기간의 사업기간이 필요한 SOC확충사업들이 박람회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하

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언론사와의 잇따른 인터뷰를 통해 “목포~광양 고속도로 등의 각종 대규모 현안사업들이 박람회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기반을 마련한 뒤 (장관직을) 떠나겠다”고 말하는 등 박람회와 연계된 SOC확충 사업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왔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 도로와 철도 건설 등 모두 21개 사업에 10조4천89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수박람회 개최 대

비 SOC확충계획’을 수립, 건교부에 건의해놓은 상태다.
전남도는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국토 서남부의 고속교통망 확충과 무안공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사업 역시 화양~조발~문병~남도~적금도를 잇는 전체의 관광자원 조성 및 고흥 우주센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퇴직금 받는 비정규직 5년새 2.5배 늘어

올해 200만명 육박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크게 늘면서 고용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을 통틀어 퇴직금이나 상여금 등 근로자가 요구하는 복지혜택을 누리는 근로자 비중은 매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중에서 퇴직금이나 상여금을 받는 근로자의 수는 5년 전 대비 2.4~2.5배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수년 간 비정규직 근로

자가 수적으로 늘어났지만 기업들이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는 2002년 8월 79만1천명이었으나 2003년 114만2천명, 2004년 168만9천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2005년 157만9천명으로 주춤했다가 2006년 165만5천명, 올해 198만3천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퇴직금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조사를 처음 한 5년 전의 2.5배에 달한다. /연합뉴스

엑스포 관련 회의 잇따라

오늘 서울서 유치위 총회 등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마무리하고, 또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회의가 잇따르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17일 오전 11시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위원 총회를 개최한다. 9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2년여에 걸친 유치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유치위원회 해산 및 청산일을 선인한다.
이와 18일에는 전남도청에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법(안)’ 검토 및 의견제출을 위한 전략회의’가 열린다. /홍행기자 redplane@

조선이공대학 2008학년도 교수초빙 재공고

1. 비정규직 겸임 교원 초빙분야 및 인원

학 과	전공	제출 분야	인원	비고
테크노로보틱스	기계	기계제어	1	
생명공학	화학공학	단위조각 및 촉매공학 분야	1	
화학공학	화학공학	화학공학, 전공분류	1	
실용건축디자인과	산업디자인	제품디자인 / 모델제작	1	
사회복지경영	사회복지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 평가, 상담실력	1	
계			5	

2. 지원자격
가. 사립학교 교원임용 및 우리대학 교원임용에 불합격자가 아닌 자
나. 우리대학 교원제출서류 제4호(임용자격)에 해당하는 자
다. 박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제외)

3. 임용조건
가. 비정규직 겸임교원은 계약제 및 인건비로 인용예정이며, 계약기간은 원으로 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교원인사위원회 의견 심의를 실시하여 재임용 여부 결정하며, 복수는 비정규직 겸임교원을 겸용하는 보수규정에 의함
나. 신규임용 교원의 직위는 전임강사로 임용함

4.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07. 12. 26(수) ~ 2007. 12. 28(금) 13시 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 회 수 책 : 조선이공대학 학사관리처 교무팀(대학본부 2층)

5. 유의사항
가. 지원자는 복수로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음
나. 우리대학 재원사서(소장) 및 전임교원 공개자격을 충족하지 공직사범에서 확인하기 때문
다. 서류접수 후 교원인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에서 지원자는 개별 통지함
라. 비정규직 임용은 일제 접수되지 않으며, 지원서류는 일제 인봉하여 제출함
마. 석 박사 학위논문 및 연구실적 등은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바.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된 것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임용을 취소함
사. 산업계 및 공공기관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해당 임제 및 기관의 소속종류 서류와 근로자 총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1) 소속종류 서류 : 국민연금 가입증명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세부서 발송)
2) 근로자수 증명서류 : 국민연금 영수증으로 명세표 또는 원천징수이영 상환신고서에 해당 임제 및 기관의 원천징수증 원본 서류
아. 교수초빙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대학 제 규정과 지침에 의함

6. 문의처 :
○ 담당부서 : 조선이공대학 학사관리처 교무팀
○ 전화번호 : (062) 230-9044~9042
○ 팩스번호 : (062) 230-8043
○ 홈페이지 : http://www.chonm.ac.kr

2007년 12월 17일

조선이공대학
CHOSUN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 마일리지에 대한 유효기간도입 예정안내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하는 마일리지는 5년간 유효합니다. 2008년 6월 30일 이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부로 스카이패스 마일리지에 대해 유효기간을 도입합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대한항공 또는 제휴 항공사를 이용한 마일리지는 탑승일로부터, 제휴사를 이용한 마일리지는 적립일로부터 5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며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마일리지는 소멸됩니다. 단, 2008년 6월 30일 이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한항공은 공인 제도개정과 더불어 보너스 좌석 제공을 늘리는 등 고객의 원활한 마일리지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2월

대한항공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이사 체제 전환에 따른 의견 제출 안내

조선대학교는 해방 직후 민족국가 건설을 위하여 7만 2천여 회원들의 열망이 모아져 만들어진 지역민의 대학입니다. 조선대학교는 20여년의 임시이사 체제를 청산하고 희망찬 미래에 새로운 발전을 책임질 수 있는 정이사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최초 정이사 선정을 위해 학내 구성원과 우리 대학 설립에 공헌했던 지역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의 이해관계인과 정이사 후보자 선정에 의견을 피력하고자 하는 분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제출 방식 : 서면 제출
2. 제출 기한 : 2007. 12. 20.(목) 17:00까지
3. 제출 장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번지
조선대학교 대학자치운영협의회회의실(본관 2층)
※문의처 : 조선대학교 대학자치운영협의회회의실
(☎062-230-7670,6119)

2007. 12. 17.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장
조선대학교 대학자치운영협의회 대표의장